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 고전적 '두 정부'론의 규범적 이해와 현대신학적 전개 및 발전
탐색을 중심으로 -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

I. 서론

II. 고전적 '두 정부'론의 공공성 이해

1. 어거스틴: 긴장과 협력 관계 속에 있는 두 정부
2. 아퀴나스: 단일체적 통일성 안에 있는 두 정부
3. 루터: 두 정부의 역설적 공존
4. 칼뱅: 거룩한 연방(the Holy Commonwealth)을 향해 가는 두 정부
5. 교회의 공공성의 규범적 기초

III. 현대신학의 주된 패러다임과 교회의 공공성 이해

1. 자유주의의 리츨: 온 세계 안에 '도덕적 연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
2. 기독교공동체주의의 요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향해 보이라!
3. 후기자유주의의 홀렌바흐: 기독교의 공공선 전통을 회복하고 공공선 증진에 전력을 다하라!
4. 공공신학의 스타크하우스: 공적 삶의 영역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라!
5. 비교와 종합적 평가

VI. 결론

• ABSTRACT •

A Theological and Ethical Study on the Public Nature of the Church:
Exploring Normative Understanding of Classical Doctrines of the Two
Governments and its Development in Major Paradigms of Modern
Theology

Lee, Chang-H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ublic nature of the Christian church normatively. In other words, I intend to explicate theologically and ethically normative features that shape the public nature of the church essentially. In particular, my inquiry centers around the doctrine of the two governments. The doctrine supposes a vis-à-vis of church and state(or the spiritual government and the civil government), as distinct structures belonging to distinct societies. It implies that there is a differentiation of the inner life's true piety and worship from social behavior and civic virtue. Given that there exists a distinc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complex relations have been traced in history.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igious-spiritual' government and the 'civil-moral' governmen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ecessarily conflicting or antagonistic? If not, is there any room for the spiritual government's transforming the secular government? What justifies theologically the identity of the church as a public entity?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first of all, I explore normative elements of the church's public nature in analyzing the doctrines of the two governments shaped by such classic theologians as Augustine, Aquinas, Luther and Calvin. Secondly, in investigating major modern theological paradigms' understanding of the church's public nature in terms of the doctrine of the two governments, I will explicate their continuity with classic Christian social ethics and explore the way in which they can contribute to enriching the normative understanding of the church's public nature. Lastly, I conclude with several ethical suggestions which are conducive to strengthening the church's public nature.

Key words: Public nature of the church, the doctrine of the two governments, church and state, the church's public participation, Christian social ethics

I. 서론

공공성(公共性)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¹⁾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성질’로서 공공성을 구성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공공성은 사적 영역과 대비되는 다른 영역 곧 공적 영역을 상정한다. 또한 공공성은 공적 영역과 ‘관련된’ 성질을 가리킨다. 공적 영역과의 관계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는데, 관계성은 관계를 이루는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동반하며 그러한 상호작용은 공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적 영역과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성 안에서 공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공적 관계성과 영향의 가능성은 존재론적 공적 본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교회의 공공성을 진지하게 또 전문적으로 성찰하는 대표적인 현대신학의 흐름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공공신학을 떠올릴 것이다. 공공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공공신학이라는 명칭에서 ‘신학’을 수식하는 ‘공공’(public)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규범적 특징을 밝힌다. 먼저 기독교의 본질은 사적인 신앙적 추구에 한정할 수 없고 본성상 공적인 특징을 강하게 띤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공’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²⁾ 또한 이론신학, 실천신학 등 다른 신학의 자원들을 참고·활용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사회윤리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공적 영역 안에서 소통하고 또 공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공공신학의 책무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³⁾ 이러한 ‘공공’ 개념 이해에서 볼 때, 교회는 그 본성

1) 〈NAVER 국어사전〉. <http://dic.naver.com/>

2)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7), 10-12.

상 ‘공적인 교회’(ekklēsia publica <에클레시아 푸블리카>)이다. 공적 실체로서의 기독교회의 공공성은 공적 영역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그 영역에의 참여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 관계 형성과 참여는 윤리적으로 당위적인 명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회의 ‘공적 영역과의 관계 형성과 공적 참여’를 윤리적 당위성으로 존중하면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교회의 ‘공공성’을 규범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교회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규범적 요소들을 밝히고 또 그 요소들을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본 논문의 근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특별히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이해를 ‘두 정부’론(Doctrine of the Two Governments) 혹은 ‘두 왕국’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두 정부’론은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여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해 온 ‘교회의 공적 본질과 사명 수행에 관련된 사회윤리적 가르침’을 뜻하는 것으로서,⁴⁾ 이 사회윤리적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국가 혹은 세속 정부와 영적 정부 사이의 대비적 구분을 상정한다. 내적 삶의 참된 경건과 예배 그리고 사회적 행동과 시민적 덕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교회 밖의 영역에서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는 세속 정부는 불법적 행위들을 제어하기 위해 적절하게 개입하여 강제력

3)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서울: 북코리아, 2013), 170-73; 문시영, 「공공신학 실천을 위하여: 공사의 이분법을 넘어서」,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서울: 북코리아, 2008), 48.

4) ‘두 정부’론에 관해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오도노반(Oliver O’Donovan)과 리틀(David Little)을 들 수 있다. 이 사회윤리적 가르침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심도 있게 다룬 주된 저작은 다음과 같다. Oliver O’Donovan, *The Desire of the Nations: Rediscovering the Roots of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David Little, *Reformed faith and religious liberty*, Donald K. McKim (ed.),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2).

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내적 삶 혹은 영적인 삶은 오직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규율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정부는 세속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두 정부 사이에 차이(구분)가 존재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둘 사이에 복잡한 관계의 형태들이 존재해 왔음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앞으로 상술하겠지만, 요더와 같은 신학자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 사이의 대조적 구분을 강조하는 반면, 어거스틴과 같은 고전신학자나 스택하우스와 같은 현대 신학자는 두 정부를 구분하지만 동시에 둘 사이에 공동의 기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기본적인 사회질서와 평화, 물질적 삶의 토대, 정의로운 정치사회 공동체의 형성 등과 같은 인간 생존의 조건들은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분을 넘어서 둘 사이의 공동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정부’론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윤리적 질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종교적·영적’ 정부와 ‘시민적·도덕적’ 정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전자는 후자와는 독립적으로 혹은 철저히 분리되어 존재하고 또 본연의 종교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가? 둘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적대적이거나 갈등적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영적 정부가 세속 영역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교회 밖 공적 영역과 ‘관계 맺기’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공적 실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신학적 정당화의 논거는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들은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 사이의 관계성, 전자의 후자에 대한 공적 영향(변혁)의 가능성, 영적 정부(교회)의 공적 정체성의 신학적 근거 등의 주제로 묶어 볼 수 있겠다.

이 주제들은 교회의 공공성을 윤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규범적 요소들이기에, ‘두 정부’론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규범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타당하다. 이러한 탐구를 진행함에 있어, 필자는

먼저 개신교와 가톨릭을 망라하여 기독교 신학과 윤리의 토대가 되는 고전 신학자들인 어거스틴(St. Augustine), 아퀴나스(Thomas Aquinas), 루터(Martin Luther), 칼뱅(Jean Calvin)의 ‘두 정부’론을 고찰하면서 교회의 공공성의 규범적 기초를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현대신학의 주된 패러다임들의 공공성 이해를 ‘두 정부’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고전적 사회윤리와의 연속성을 살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공공성의 규범적 이해의 성숙을 위한 현대신학의 기여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속 영역과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위한 ‘신학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현대신학의 ‘패러다임’을 ‘자유주의’, ‘기독교공동체주의’, ‘후기자유주의’, ‘공공신학’ 등의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누고 각각의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학자들을 연구할 것인데,⁵⁾ 자유주의의 리츨(Albrecht Ritschl), 기독교공동체주의의 요더(John Howard Yoder), 후기자유주의의 홀렌바흐(David Hollenbach), 공공신학의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 등을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각 패러다임이 위에서 밝힌 공공성의 규범적 요소들에

5) 자유주의는 외부 세계와의 소통과 담론 형성을 위한 공동의 기반을 찾는 데 관심이 크다. 공동의 철학적 지적 기반이나 공동의 인간 경험 등을 열심히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기반과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는 세속 영역과의 소통의 언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신학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이해이다. 후기자유주의도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소통을 위한 공동의 기반을 추구한다. 그러나 공동의 기반을 인정하면서도, 후기자유주의는 교회(혹은 신학)에 고유한 언어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세속의 언어로 포착되고 또 표현될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학적 신념이 존재한다는 점을 견지한다. 공공신학은 자유주의와 후기자유주의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후기자유주의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의 기반을 추구하며 또 기독교에 고유한 신학적 신념이 세속의 청중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세속의 영역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공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더 낙관적이다. 앞의 세 패러다임과 달리, 기독교공동체주의는 소통 보다는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보존에 더 큰 관심을 둔다. 공동의 철학적 지적 경험적 기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성과 속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공동의 언어는 기독교의 고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부적절하며 기독교의 본질적 신념과 삶의 방식을 순수하게 지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는다.

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이들을 비교·평가하면서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좀 더 온전한 규범적 이해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함으로써 논문을 맺고자 한다.

II. 고전적 ‘두 정부’론의 공공성 이해

1. 어거스틴: 긴장과 협력 관계 속에 있는 두 정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은 두 도성 곧 신의 도성과 세속 도성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된다.⁶⁾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 중에 어느 쪽을 더 지배적으로 사랑하느냐에 따라 소속이 달라진다. 세속 도성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이웃을 멸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반대로 신의 도성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할 줄 안다. 다시 말해, 각 도성의 소속은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어디에서 있는지를 통해 결정된다.”⁷⁾ 두 도성 가운데 하나라는 식(式)의 어거스틴의 전형적 구분은 “성인과 불의한 이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들과 패역한 이들, 선택받은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 사이의 구분으로 나타난다.”⁸⁾ 이 둘 사이에 대조적 관계를 설정하지만, 이 둘 사이의 구분은 역사적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제도적 구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세속 도성은 제도로서의 국가와 일치하지 않으며, 신의 도성 또한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다.

6) Augustine, *The City of God*, tr. by Marcus Dods (New York: Random House, 2000), XIV.1.

7) R. A. Markus, *Saeculum: History and Society in the Theology of St. August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59.

8) 위의 책, 59-60.

어디에 속하느냐는 원칙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마지막 날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두 도성은 역사적 정치사회적 공동체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두 도성에 속한 사람들의 내적인 사랑의 역동을 따라 어떤 사회적 문화적 유대와 흐름(혹은 에토스)을 형성하고 있다. 세속 도성의 사회적 유대는 “세속 도성에 속한 이들 스스로 설정한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덧없는 목적들을 향한 추구”를 중심으로 형성된다.⁹⁾ 반대로 신의 도성의 사회적 유대는 공동의 선(혹은 공공선)을 자기 유익보다 항상 앞세우는 구성원들의 참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선을 앞세우는 참된 사랑’에 담긴 사회윤리적 의미는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교회가 국가에 대응하는 권력 구조가 되어야 한다거나 권력 구조의 대체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분명히 반대한다. 그렇다고 어거스틴은 기독교인들에게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적 이상을 이루기 위한 혁명적 과업에 참여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웃 사랑이라는 소명에 충실하여 세속 정부¹⁰⁾의 공적 임무들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협력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이기적 사랑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공동의 선을 위해 자기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산다면, 세속 정부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¹¹⁾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사람들로 세속 영역 속에서 살아가면 공공선을 증진하고 정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

9) 위의 책, 61-63.

10) 어거스틴에 따르면 정치권력은 세속 영역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의 반영이어야 한다. 이 사랑은 정치권력의 공공선·지향적 역할 수행을 통해 정치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Augustine, From letter 138, to Marcellinus, in Michael W. Tkacz and Douglas Kries (tr.), *Augustine: Political Writings*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4), 209-10.

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사랑과 공공선에 대한 사랑 사이의 긍정적 연속성을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아퀴나스: 단일체적 통일성 안에 있는 두 정부

아퀴나스에게 인간은 본질적으로(혹은 생래적으로) 사회적이다. 어떤 형태이든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은 국가와 같은 정치 체제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국가 권력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협력 관계로 이끌어 공공선을 증진해 가는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아퀴나스는 강조한다.¹²⁾ 다시 말해, 국가란 구성원들 사이의 지배와 피지배의 상황을 상정하며, 지배하는 이는 국가 공동체를 공공선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통치의 주된 수단인 법의 본질적 목적은 “공공선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공공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 혹은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의 책임이다.”¹³⁾ 폭군적 정권은 최악의 형태이다. 왜냐하면 공공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통치자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 공동체가 지도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면, 폭군의 되어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는 정치지도자를 왕위에서 내리거나 그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¹⁴⁾ 반대로 좋은 권력은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공공선(혹은 공동의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노력한다.

12) Thomas Aquinas, *On Kingship*, in Paul E. Sigmund (tr. and ed.), *St. Thomas Aquinas on Politics and Ethic*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88), Ch. 15.

13)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이하 ST) I-II 90. <http://www.newadvent.org/summa/>

14) ST II-II 42.

아퀴나스는 『왕권에 관하여』 14장에서 공공선을 신학적 혹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서 공공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궁극적 행복”이다.¹⁵⁾ 국가를 포함하여 인간 사회의 공공선(혹은 공동의 선) 역시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의 사명은 백성들을 이 목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천상의 복락을 향해 움직여 가야하며, 장애들(반대들)을 최대한 제어해야 한다.”¹⁶⁾ 이 점에서 정치 지도자의 사명과 인류의 목적은 종말론적 지평을 갖게 된다. 세속 정부의 통치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지상에서의 행복한 삶 뿐 아니라 궁극적 종말론적 선(善)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관리하고 또 방해 요소들을 제어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퀴나스는 세속 통치자들은 성직자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법(神法, the divine law)의 인도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조언인 것이다.¹⁷⁾ 요컨대, 성과 속을 포괄하는 단일 체적(unitary) 개념 안에서 아퀴나스는 ‘사회윤리의 근거’의 관점에서 자연법과 성서적 계시를 통합하며 ‘사회적 이상과 실제’의 관점에서 역사와 종말론적 이상을 통합한다. 이 구도 안에서 기독교는 신학적 기초를 닦고 세속 영역에 대한 보편적 권위를 가지는데, 신학적 윤리가 기독교적 문명 일치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3. 루터: 두 정부의 역설적 공존

「세속 권위」에서 루터는 그리스도 왕국과 세속 왕국을 선명하게 구분한다. 그리스도 왕국은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왕국은 영적

15) Thomas Aquinas, *On Kingship*, Ch. 6.

16) 위의 책, Ch. 14.

17) 위의 책, Ch. 15.

정부를 가리키는데, 이 정부는 참된 신자들의 영혼을 다스리며 또 개별 신자들의 경건을 성숙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기구(혹은 제도)가 아니며, 말씀과 성례의 형태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의해 세워지고 또 유지된다.¹⁸⁾ 참된 신자들에게는 법도 강제도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을 친히 가르치며, 그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만들며 또 그 어떤 형태의 불의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또 즐거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때문이다.¹⁹⁾ 반대로 세속 왕국은 세속 정부를 가리키며, 모든 불신자들 곧 참된 신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로 구성된다. 이 세상이 오직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왕국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참된 신자들은 참으로 드물기에, “하나님은 비신자들을 위해 하나님 왕국 밖에 다른 왕국 하나를 마련하신다.”²⁰⁾ 하나님은 이 왕국 안에서 사람들이 법과 권위에 복종하게 하여 악행과 범법을 제어하시고 생존에 필요한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통치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두 정부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 영적 정부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이신데, 구성원들의 내적 혹은 영적 삶을 관장하신다. 다른 한편으로, 세속 정부는 인간 실존의 외적 조건들 곧 생존의 필요한 조건들을 관장한다.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 없다. “만일 세속 권력이 영혼의 문제에 관해 세속 법질서에 근거한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요 결국 영혼을 파괴

18) Mary Jane Haeming, The confessional basis of Lutheran thinking on church-state issues, in John R. Stumme and Robert W. Tuttle (eds.), *Church and State: Lutheran Perspectiv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9.

19) Martin Luther, Secular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Joh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Anchor Books, 1962), 369.

20) 위의 글, 370.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²¹⁾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왕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세속 정부는 영적 정부가 이 땅에서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평화와 질서를 확보해 준다. 만일 영적 정부가 성과 속의 만사(萬事)와 만민(萬民)을 다스리려 하다 보면, “악에게 고삐를 풀어 주는 꼴이 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빗장을 푸는 셈이 될 것이다. 세상은 영적인 일들을 받아 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²²⁾ 또한 세속 정부도 영적 정부를 필요로 한다. 교회는 세속 정부의 공적 지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세속 정부의 역할 곧 생존을 위한 외적 조건들을 마련하는 등의 공적 역할을 존중하며 세속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루터는 가르친다. 다시 말해, 참된 신자들(혹은 그리스도 왕국 백성들)은 세속 정부의 선(善)에 이바지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데,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보호받고 또 악인들이 더욱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²³⁾ 요컨대, 신자들은 세속 정부를 세운 주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이웃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세속 정부를 위해 또 세속 정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21) 위의 글, 382-83.

22) 위의 글, 372.

23) 위의 글, 373.

4. 칼뱅: 거룩한 연방(the Holy Commonwealth)을 향해 가는 두 정부

칼뱅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국가 혹은 세속 정부와 영적 정부 사이의 구분을 견지한다. 전자는 사람의 내면 혹은 영혼 속에서 그 주권을 행사하며, 후자는 시민적 기구들과 행동에 대한 외적 규율에 관계한다. 내적 삶의 참된 경건과 예배는 사회적 행동과 시민적 덕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된다.²⁴⁾ 이런 맥락에서 칼뱅은 세속 정부(혹은 정치적 정부)는 신앙의 고백적 일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낯선 사람(stranger)’이 되어야 하며 반대로 영적 정부(혹은 교회)는 “군주에게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²⁵⁾

그러나 두 정부가 완전히 모순적 관계나 공존이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는 식(式)으로 칼뱅을 이해한다면, 이는 온전한 이해가 아니다. 칼뱅은 둘 사이의 공존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한다. “정치적 정부는 그 중요한 목적으로 하나님 예배의 외적 측면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입지를 변호하는 등”의 과업을 부여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세속 정부의 역할이 인간 행동의 외적 측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적 권위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숭배, 신성모독, 진리에 대한 비방’이 없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책무를 가진다고 하겠다.²⁶⁾ 여기서 칼뱅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형성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바로서의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겠지만 예배나 교리와 같은 신앙 실천의 부분에서는 국가가 일정 정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24) Jea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s. I, II., ed., by John T. McNeill and tr.,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20.1.

25) 위의 책, IV.11.3.

26) 위의 책, IV.20.3.

아니라, 정치권력이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한 시도의 연장선에서 정치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신앙적 통일을 추구하는 데까지 힘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리적 문제에 징벌을 받은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의 경우는 칼뱅의 정치신학이 정치적 권력에 의한 종교적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기라 할 수 있다.

세속 정부의 정치적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칼뱅의 이해로부터 세속 권력의 궁극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과 그 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칼뱅에 따르면 정치사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규범적 원리는 자연법에 있다. 그러나 통치 원리로서의 자연법의 지위는 파생적인데, 그 뿌리가 되는 본질적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법의 기초는 성서에 계시된 바로서 모든 법적 윤리적 원리들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사랑의 법’이다.²⁷⁾ 다시 말해, 칼뱅에게 모든 도덕적 법적 기준과 의무들의 기원과 목적은 ‘영원한 사랑의 통치’(perpetual rule of love)이다. 곧 사랑의 지배가 모든 자연적 사회적 질서가 터해야 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²⁸⁾ 칼뱅은 한편으로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 모두 궁극적으로 신법(神法, the divine law)의 규범적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둘 사이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 밖 정치사회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서의 자연법의 지위를 신법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세속 정부의 목적의 관점에서 이를 풀이한다면, 세속 정부를 긍정하지만 그 가치를 ‘독립적으로’ 긍정하지 않고²⁹⁾ 비현세적(比現世的)

27) David Little, Calvin and the prospects for a Christian theory of natural law, in Gene Outka and Paul Ramsey (eds.), *Norm and Context in Christian Ethics* (New York: Scribner, 1968), 183.

28) Jea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20.16.

29)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2, tr. by Olive

목적 곧 초월적 영적 목적을 위해 정당화한다.³⁰⁾ 다시 말해, 세속 정부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거룩한 연방’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다.³¹⁾

5. 교회의 공공성의 규범적 기초

1) 관계성

두 정부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위의 네 신학자는 규범적으로 둘 사이의 적절한 구분과 관계 형성의 가능성은 견지하지만, 분리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네 사람 사이에 정도와 방식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두 정부 사이의 소통과 ‘관계 맺기’는 불가피하며 필연적이다. 무엇보다도 이 네 사람 모두가 두 정부를 세운 궁극적 주체를 하나님으로 본다는 점은 이러한 두 정부 사이의 관계성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학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대로, 어거스틴에 따르면 세속 영역은 신의 도성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공간이다. 신의 도성 사람들과 세속 도성 사람들은 공히 역사적 제도(혹은 기구)로서 교회와 국가에 참여한다. 두 정부 사이의 적절한 구분과 차이를 견지하면서도, 루터 역시 둘 사이의 관계 형성과 협력가능성을 인정한다.

칼뱅과 아퀴나스는 둘 사이의 분리 보다는 통일에 좀 더 비중을 둔다. 성과 속의 영역을 포괄하여 교회와 국가(혹은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거룩한 연방을 함께 추구해 가는 사회적 구도는 칼뱅의 정치사회적 이상의 요점이다. 아퀴

Wy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606.

30) 위의 책, 604.

31) 위의 책, 607.

나스도 분리나 구분보다는 통일성에 더 비중을 둔다.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적 공간 전체를 ‘영원법’(the eternal law)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에 근거하여 아퀴나스는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를 단일체적 구도 안에서 설명한다. 다만 교회의 정치 권력화와 세속권력의 신앙의 자유 침해를 경계하기 위해 두 정부 사이의 구분을 강조한 루터의 사회윤리적 조언에 아퀴나스와 칼뱅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정부 사이의 연속성과 세속 영역 안에서의 교회의 공적 참여에 대한 강조가 교권·우위적 ‘세속 권력에 대한 기독교제국적(Christendom) 통제’와 세속권력·우위적 ‘신앙의 자유 침해’라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2) 공적 영향(변혁)의 가능성

앞에서 본 대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 사람들도 세속 영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랑으로 사는 신자들의 존재와 역할 수행은 정치사회 공동체의 공공선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세상 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은 이웃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적 정부에 속한 참된 신자들은 세속 정부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의 소명을 실현하며 다른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루터는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전체 사회의 공공선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윤리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와 칼뱅의 ‘두 정부’론은 공적 영향의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국가 공동체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귄 안에서 지복(至福)을 누리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궁극적 사명은 바로 그가 통치하는 정치사회 공동체를 이 목적을 향해 인도하는 것이다. 정치사회 공동체의 삶이란 목적론적인데, 하나님께 궁극적 완성이 달려있는

바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 사회 공동체의 목적론적 여정에서 국가(세속 정부)는 교회(영적 정부)의 사회적 가르침에 민감해야 한다는 아퀴나스의 조언은 세속 영역에서의 신학적 윤리적 변혁 가능성을 내포한다. 인생과 역사와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성과 속을 포괄하여 율법 말씀에 기초한 법적 제도적 체제와 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칼뱅의 신학과 실천에서 우리는 공적 영역에 대한 기독교적 변혁에의 의지와 적극적 사회윤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이 네 신학자들에게서 우리는 ‘공적 영향(변혁)의 가능성’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규범적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곧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세속 영역 안에 삶의 자리를 두고 있으며, 그 영역 안에서 동료 신자들 뿐 아니라 정치사회 공동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공선 증진에 이바지할 공적 책임을 가진다는 점이다.

3) 교회의 공적 정체성의 신학적 근거

하나님의 창조의 지평을 존중하는 섭리적 사랑에 입각하여 어거스틴은 기독교인들에게 세속 영역에서 인간과 인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랑의 품 안에 두고 전체 정치사회 공동체의 공공선을 지향하라고 권면한다. 아퀴나스는 정치권력의 존재 목적은 공공선이며, 교회는 목적론적 단일체적 세계관에 따라 정치사회 공동체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역사적인 또 초월적인 공동의 선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루터에 따르면 세속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동기는 세속 영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다. 참된 신자들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을 갖추고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다. 칼뱅의 거룩한 연방에 관한 신학적 기획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통치’를 정치적 체제들을 통해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강렬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그 주권에 반응하여 공적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소명을 발견한다. 세속 영역에 대한 궁극적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 주권을 섭리적 사랑으로 드러내신다는 점이 교회의 공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신학적 근거가 된다. 기독교인들은 창조의 지평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에 응답하여 세속 정부의 공적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전체 사회의 공공선을 증진하도록 부름 받은 공적 존재들이니 것이다.

III. 현대신학의 주된 패러다임과 교회의 공공성 이해

1. 자유주의의 리츨: 온 세계 안에 ‘도덕적 연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

1)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리츨의 사회윤리

리츨의 사회윤리는 ‘하나님 나라’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필자는 리츨의 하나님 나라 이해의 두 가지 본질적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리츨의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이다. 다만 리츨에게 고유한 종말론적 이해에 근거하여 그의 ‘하나님 나라’론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종말론은 역사와 세계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가르침이다. 완성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속하는 ‘마지막 날’에 있다. 이러한 종말론적 구도에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구현되

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은 신학적 논의의 초점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비중을 두는 종말론과는 대비적으로, 하나님 나라 구현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종말론적 신학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보기로는 몰트만(Jürgen Moltmann)을 들 수 있겠다. 몰트만에게 종말론은 세상의 끝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시작'에 관한 가르침이다. 그 시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기적으로 선취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뜻함이다. 이런 맥락에서 몰트만에게 미래는 과거에서 현재 또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해 가는 일직선적 시간 구도 안에서 한 시제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의 미래로부터 현재 속으로 들어오는 '도래'(adventus <아드벤투스>)로서의 미래이다.³²⁾ 이러한 도래를 통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어느 때로 유보된 실체가 아니라, 종말론적 완성의 미래로부터의 '도래'안에서 실현되는 현재적 실체인 것이다. 리츨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가? 아니면 미래적인가?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미래의 시점에 방점을 두는 전통적 종말론에 견주어 리츨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의 현재적 실천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현재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궁극적 완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진보해 간다고 강조한 점에서 미래적이다.³³⁾ 이렇게 볼 때 리츨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이해는 전통적 종말론과 몰트만적(的) 종말론 모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미래에로의 유보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 가능성을 차단한 것에 대해 그리고 후자에 대해

32) Jürgen Moltmann, *Das Kommen Gottes*, tr. by Margaret Kohl, *The Coming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25-26.

33) Albrecht Ritschl,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and Reconciliation*, tr., by H. R. MacIntosh and A. B. Maculay (Edinburgh: T. & T. Clark, 1900), 30-31, 300-301.

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기적으로 선취한 ‘완성’과 그 완성으로부터의 ‘도래’를 신적 주권에 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구현을 위한 인간의 참여 가능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후자의 관점에서 리츨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어서 인간의 ‘뒀’을 강조한다. 역사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 역사의 본질적 구현 방식은 인간의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실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 안에 실현하시고자 하는 지고선(*summum bonum* <숨뭍 보뭍>)이다. 이와 동시에 이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인간 편에서의 순종을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³⁴⁾ 그리하여 리츨에게 이 두 가지 측면은 ‘상호의존적’이다.³⁵⁾ 리츨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칭의와 성화의 구원론에 관한 종교개혁적 이해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역사와는 다른 강조점을 내포한다. 곧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칭의와 화해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 주도적 결정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 부름 받아야 하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독립적이며 책임적인 행위자들이다.”³⁶⁾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하나님 나라를 통한 하나님 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필수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편에서의 순종과 하나님 나라의 소명에 응답하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은 실제적인 것으로 인생과 역사와 세계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다.

34) 위의 책, 30.

35) 이러한 ‘상호의존성’에 관한 리츨의 견해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저작들이 도움이 되었다. 이신형, 『리츨 신학의 개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Philip Hefner, *Faith and the Vitalities of History: A Theological Study Based on the Work of Albrecht Ritschl* (New York: Harper & Row, 1966).

36) Albrecht Ritschl, 앞의 책, 30-31.

둘째, 리츨의 하나님 나라는 ‘도덕’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 리츨은 여러 차례 ‘도덕적인’(moral)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한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 이상이 실현 되는 영역인 것이다. 리츨에게 도덕적 이상향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구현되어야 할 규범적으로 보편적인 이상은 무엇인가? 사랑이다.³⁷⁾ 이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상응하기에 그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이며,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적 사랑에 상응하기에 그 내용에 있어서 이타적이며, 또한 예수께서 사랑의 완전한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하심으로 소명을 완수했다는 의미에서 윤리적 관점에서 의무론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라는 소명에 충실하게 또 철저하게 응답함으로써 ‘사랑’을 구현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인격’안에 또 ‘온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수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수용함으로써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 나라 실현에 부름 받는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이상 곧 타자·지향적 희생적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혹은 하나님의 도덕적 주권)를 실현하는 것이다.

혈통적 인종적 사회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와 분열을 극복하고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는 ‘도덕적 연합’(moral fellowship)에 이르기 위해서 인류는 보편적 사랑에 의해 각성되고 또 규범적으로 인도를 받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역사내적(歷史內的) 정치사회 제도들을 넘어서며 또 궁극적으로 이들을 하나 되게 한다. 이러한 하나됨은 정치사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영역

37) 위의 책, 610-11.

(혹은 초월적) 목적이 되며, 그 목적은 ‘윤리적’ 삶의 양식과 실천을 통하여 완성에 이른다. 이 점에서 리츨은 ‘윤리화’를 통해 영적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규범적 기반은 리츨의 용어로 ‘도덕법’(the moral law)이다. 도덕적 연합은 구체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은 사랑으로 묶인 보편적 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이다. 도덕법은 그러한 행동들을 규율하는 규범적 체제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은 도덕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이며, 도덕법이 지시하는 목적들을 인식하게 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는 동력이다.³⁸⁾ 기독교적 세계 이해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계가 지향하는 초월적 최종적 목적이기에, 도덕법은 ‘시민법’(the civil law)을 포괄한다.³⁹⁾ 이런 맥락에서 도덕법은 특수한 정치사회 공동체에 한정되는 사회적 목적들과 그와 관련된 행동들을 규율하는 시민법을 배제하지 않고 수렴하는 포괄성을 견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포괄적 목적’을 지향하며 ‘보편적 사랑의 주관적 동기’에 좌우되는 의도와 행동 그리고 삶의 양식을 규율한다.⁴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수의 이타적 자기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윤리적 삶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과 정치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 사랑을 명령하는 도덕법을 실천하여 ‘도덕적 연합’에 이르고자 힘쓰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으로 상응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 목적의 구현을 위해 ‘사랑의 법’을 규범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무론적으로 연속성을 갖는다. 여기서 리츨은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도덕·존재론적(moral ontology) 기반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너의 용어로, 모든

38) 위의 책, 511.

39) 같은 책.

40) 위의 책, 511-12.

인간은 ‘은혜 받은 본성’(graced nature)을 보유한다. 라너(Karl Rahner)에게 은혜는 초월적 신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의 영역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⁴¹⁾ 다시 말해, 인간 본성은 은혜 없이 가능하지 않다. 모든 인간은 그 본성에서 이미 은혜를 머금고 있는 것이다.⁴²⁾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은 구원의 실제적 질서 안에 있다.”는 명제가 흘러나온다.⁴³⁾ ‘은혜 받은 본성’은 제도적 기독교 안팎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는 자유주의의 낙관적 인간 이해와 인간 예수의 도덕적 완성에 상응하여 인간 구원의 선결조건으로서의 선한 잠재성의 도덕적 실현이라는 구원론적 이해의 근거로 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나라 구현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는 공적 소명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리츨은 하나님 나라와 도덕적 연합을 동일시함으로써 성과 속 혹은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 사이의 구분을 철폐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의 사랑의 실천과 보편적 도덕의 원리로서의 도덕법의 실천을 동일시함으로써 종교와 윤리 사이의 구분을 철폐한다. 그리하여 리츨은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론적 규범으로 삼는 자유주의적 보편윤리의 기초를 닦는다.

2) 고전적 ‘두 정부’론의 공공성 관점에서의 평가

리츨의 두 정부 사이의 관계성 이해는 누구보다도 아퀴나스를 연상케

41) Karl Rahner,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An Introduction to the Idea of Christianity* (Crossroad, 2000), 128.

42) 같은 책.

43) Karl Rahner, Nature and grace, *Theological Investigations*, Vol. 4 (Helicon, 1966), 180.

한다. 영적 정부에 대한 용어로 리츨이 선호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세속 영역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공동체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이들은 타자와 세상을 위해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리츨의 사회윤리적 구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의 둘 사이의 구분이나 분리를 경계하고 단일체적 사회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퀴나스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리츨의 견해로부터 우리는 리츨의 교회의 공공성 이해는 적극적 참여와 변혁의 추구라는 규범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구현 주체는 영적 정부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법에 근거하여 교회 안과 밖의 모든 구성원들은 보편적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도덕적 연합 곧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의 소명을 받는다. 신앙 공동체의 공적 정체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라너의 개념으로 ‘은혜 받은 본성’ 곧 ‘도덕법에 기반을 둔 보편적 사랑의 의무의 실행과 연관된 의지적 역동’이다. 이미 신자들에게 주어진 보편적 사랑의 의무와 실행의 도덕적 능력이 신자와 신앙 공동체의 공적 정체성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된다는 말이다.

2. 기독교공동체주의의 요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향해 보이라!

1)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요더의 사회윤리

요더의 사회윤리는 성서적이고 기독교론적이다. 자연법이나 세속 철학과 윤리에 근거를 두지 않고, 넓게는 성서 일반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근

거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의 성립과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지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 성경 선포의 주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효율이며,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⁴⁴⁾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계시된 말씀은 성경의 다른 모든 본문들을 해석학적으로 지시하는 경전 중의 경전 (canon within canon)이다.

요더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 세대(aeon)의 나타남이다.⁴⁵⁾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종말론적 구원 역사의 사회적 현시(social manifestation)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존재이며,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정치적 관점에서 말하면, 교회는 교회에 고유한 이상과 정신을 제시하는 대안적 공동체이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서 모두, 교회라는 말은 본래 몸의 정치(body politic)를 지향하는 의식적인 결사(deliberative assembly)를 가리킨다.⁴⁶⁾ ‘경험적 사회적 실재’로서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고유한 이상과 정신을 구현할 때 ‘사회적 영향력’(social leverage)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밖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바가 있는데, 이 세상에 소수자일 뿐 아니라 비기독교 혹은 후기 기독교 신앙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콘스탄틴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갖고 있는 책임 의식 곧 교회가 세상을 조정·유지해야(manage)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를 밝혀 준다.”⁴⁷⁾ 교회의 사명이 교회를 둘러싼 정치사회 체제들을 기독교

44)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us Noster*,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4), 242.

45) John Howard Yoder,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Newton, Kan.: Faith and Life Press, 1964), 9.

46) 위의 책, 18.

교제국적(Christendom) 구도를 따라 재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교회는 역사와 사회 속에서 복음의 목적들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교회 신앙의 본질’(primacy)을 증언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정치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 주는 (demonstrate) 사명에 부름 받았다. 요더는 교회가 그렇게 보인 바를 직접 사회 현실 속에 대입하는 가능성은 닫아 두지만, “유비적으로, 교회가 보여 주는 바의 어떤 면들은 사회의 양심에 자극제로서 교훈적인 (instructive)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 둔다.⁴⁸⁾

요더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따름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다. 성화된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위에서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계를 포괄하지만, 요더는 교회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는 어떤 가시적 존재로 이해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종말론적 완성의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데, 세속 영역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이다. 그러므로 요더에게 하나님 나라는 타계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교회가 이 땅위에서 도달하길 열망하는 ‘역사의 핵’(core)이다. 요더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교회와 신학의 실천적 목적은 단순히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예기적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요더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현재의 시대(교회의 시대, 예수의 오심부터 재림 까지)를 두 세대(two aeons)가 겹치는 시기로 본다. 이 두 세대(혹은 에온)는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별개라 할 수 없다. 이것들은 본성에서 혹은 방향에서 다르다. 곧 한 세대는 그리스도 밖(혹은 전)의 인간 역사를 과거 지

47)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240.

48) John Howard Yoder,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17.

향적으로 가리키는가 하면, 다른 한 세대는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실현을 향한다. 각 세대는 사회적 드러남인데, 전자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후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⁴⁹⁾ 요더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 교회는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역사 안에 존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부름 받는다.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이르게 하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 공적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요더의 사회 윤리를 ‘교회됨의 사회윤리’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전적 ‘두 정부’론의 공공성 관점에서의 평가

요더는 두 정부 사이의 통일보다는 구분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이나 루터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둘 사이의 구분을 강조한다. 교회 밖 영역과의 관계 형성과 공적 영향의 가능성의 관점에서 수동적이고 제한적이다. 관계성과 공적 영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세상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말하고 실천하고 소통하려 하기 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을 ‘구현하고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다.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속 영역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대안적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고 또 고유한 존재 영역을 고수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요더의 사회윤리는 ‘공동체 내적 지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정체성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십자가로 집약되는

49) John Howard Yoder, *The Original Revolut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71), 55.

50) 위의 책, 107-24.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이다. 자연 계시나 철학과 같은 다른 기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적이다. 인간 이성과 자연법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는 실현되어 간다고 보는 아퀴나스식(式) 이해나 신법에 비해 열등하지만 자연적 이성이 정치사회적 삶의 기초로서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칼뱅식(式) 이해에 대해 요더는 매우 비판적이다. 두 정부 사이의 구분과 차이를 강조하면서, 요더는 두 정부를 규율하는 상이한 규범적 준거들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후기자유주의의 홀렌바흐⁵¹⁾

: 기독교의 공공선 전통을 회복하고 공공선 증진에 전력을 다하라!

1)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홀렌바흐의 사회윤리

홀렌바흐는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와 종교의 공적 영역에서의 가치중립적 중립 고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강조에 비판적이다. 행복과 공공선에 관한 특수한 신념체계를 견지하는 종교는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종교가 촉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홀렌바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⁵²⁾ 또한 행복과 공공선에 관한 특수한 신념을 보유한 종교의 공적 영역에의 진입을 막고 또 그러한 사회적 신념에 관해 철저한 가치중립을 강조한다면 사회적 긴장과 충돌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도시공동체의 붕괴, 양극화 심화, 가난 문제의

51) 홀렌바흐는 후기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예일대학에서 수학하면서, 후기자유주의의 토대와 뼈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프라이(Hans Frei)와 린드벡(George Lindbeck)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가톨릭 신학자이면서도 기독교 전통을 중심으로 삼고 현대의 질문과 도전 그리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후기자유주의의 기초를 충실하게 견지하고 있다.

52) David Hollenbach, *The Common Good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4-24.

고질적 악순환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⁵³⁾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 홀렌바흐의 답은 분명하다. 기독교 신학과 실천의 역사 속에서 공공선에 관한 신학적 전통을 되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영역 안에서 다양성과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공적 담론의 성숙과 공공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가르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⁵⁴⁾ 이를 위해 홀렌바흐가 특별히 주목하는 신학자는 어거스틴, 아퀴나스, 칼뱅 등이다. 이들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학적 윤리적 논지를 전개해 간다.

홀렌바흐는 칼뱅이 “인간 경험에 대한 비평적 성찰이 사회윤리의 근거가 된다고 신학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할 때 필요한 공동의 기반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칼뱅은 사회적 삶에서 인간 이성의 기능을 긍정한다.⁵⁵⁾ “자연적 이성은 그 본질에 맞게 [인간과 인간 공동체에게] 모든 법적 명령들을 존중하라고 지시한다.”⁵⁶⁾ 칼뱅의 제안에 상응하여 홀렌바흐는 하나님은 인간 이성의 창조자이시기에 “[인간과 정치사회 공동체의] 공공선과 그것의 구현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들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성이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기독교의 성서적 신앙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홀렌바흐는 시민들의 정치사회 공동체(civil society)로서 ‘공화국’(republic)은 신의 도성과

53) 위의 책, 10.

54) 위의 책, 99.

55) 위의 책, 150.

56) Jean Calvin, *Commentary on Deuteronomy*, 17:12. David Little, Calvin and the prospects for a Christian theory of natural law, 183에서 재인용.

세속 도성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살아가며 공동의 공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공적 공간이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속 정부의 정치적 법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권면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⁵⁷⁾ 기독교의 공적 참여에 관한 어거스틴의 입장을 정리한다. “현대적 개념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거스틴은 종교와 정치의 적절한 구분을 견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지만, 정치가 종교를 또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 신중하게 참여할 것을 권고하면서) 어거스틴은 교회가 사적 주관성의 영역으로 도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⁵⁸⁾ 홀렌바흐는 아퀴나스에게서 기독교 공공선 전통의 심화를 본다. 아퀴나스는 정치사회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한다.⁵⁹⁾ “신적 사랑의 완전한 성례전적 성취는 우정이나 가족관계, 일터, 정치 또는 교회, 그것이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이든 하위의 선들을 위한 하나의 본보기(exemplar)이다… (그것은) 불완전하지만 예기적으로 정치 영역 안에서도 존재한다.”⁶⁰⁾ 여기서 홀렌바흐는 아퀴나스의 사회 윤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과 인간의 역사내적(歷史內的) 성취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후자 안에 전자의 흔적을 유비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 연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실현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선(善)을 ‘정치적인 수단을 가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거부해야 한다고 아퀴나스는 가르친다는 점 또한 홀렌바흐는 지적한

57) Augustine, 앞의 책, XIX.17.

58) David Hollenbach, 앞의 책, 122.

59) Aquinas, *On Kingship*, Ch. 15.

60) David Hollenbach, 앞의 책, 134-36.

다.⁶¹⁾ 요컨대, 홀렌바흐는 기독교 공공선 전통에 근거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사적 영역에 제한하는 정적주의(靜寂主義)를 경계하고 또 공공선 증진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공적 참여를 권장한다.⁶²⁾

이상에서 살핀 홀렌바흐의 공공선·지향적 사회윤리를 현대적 논의에 적용해 보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공적 영역’ 이해에 관한 것이다. 홀렌바흐는 자유주의의 영역 이해에 비판적이다. 비정부기구(NGOs), 대학, 교회 등을 포괄하는 시민사회 영역을 ‘배경문화’로 묶어 공적 영역에서 떼어내는 톨즈식(武) 이해를 반대하는 것이다. 홀렌바흐의 공적 영역 이해는 포괄적이다. 그는 국가의 강제력 사용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정치적’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총체적으로 합하여 공적 영역이라 일컫는다. 다시 말해, 홀렌바흐에게 공적 영역은 강제적 구속력이 허용되는 정부로 대표되는 정치 영역보다는 큰 것이다.⁶³⁾ 다음으로 참여 방식에 관한 것이다. 홀렌바흐가 선호하는 참여 방식은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는 정교분리(政教分離)가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정치 영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에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에게 ‘공적 삶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공동체적 자원, 정서적 동기부여 그리고 인지적 이유들’을 제공한다.⁶⁴⁾ 그래서 종교의 공적 영향은 정치 지도자와 체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직접적 관리 혹은 통제의 결과여서는 안 되며, “종교의 정부에

61) 위의 책, 132.

62) 이창호, 「기독교의 공적 참여에 관한 철학적 윤리적 탐구: 로티(Richard Rorty)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참여 모형 모색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권 3호(2013), 177.

63) 위의 책, 109.

64) 위의 책, 111.

대한 영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기관들과 시민의 문화적 자기 이해 등에 종교가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매개되어야 한다.”⁶⁵⁾ 홀렌 바흐는 이러한 공적 참여를 통하여 기독교가 시민사회의 활성화하고 사회적 변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⁶⁶⁾

2) 고전적 ‘두 정부’론의 공공성 관점에서의 평가

홀렌바흐에게 기독교의 공적 참여는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규범적 명령이다.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과제는 세속 영역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느냐이다. 세속 영역과 관계를 맺고 또 참여하되 적절한 구분을 장려함을 보았다. 교회의 공적 관계성의 관점에서 시민사회 영역과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계 형성을 그리고 정치 영역과는 간접적이고 신중한 관계 형성을 제안한다. 이 점에서 홀렌바흐는 한편으로 세속 영역과 전면적인 관계 형성을 권장한다는 면에서 아퀴나스와 칼뱅의 ‘관계성’ 이해를 계승한다 하겠고, 다른 한편으로 참여의 방식에 있어서 적절한 구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어거스틴과 루터의 신중론을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 홀렌바흐는 정치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참여 방식이 정치권력에 의한 교회의 고유한 영적 영역 침해와 교회의 세속적 권력화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점에서 어거스틴과 루터의 적절한 구분에 대한 강조에서 지혜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홀렌바흐가 교회의 공적 정체성 인식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고하는 주된 신학적 근거들로는 하나님의 보편적 지배의 원리로서의 영원법을 통

65) 같은 책.

66) 이창호, 앞의 글, 178-79.

해 온 세계를 궁극적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아퀴나스)과 성과 속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생존의 요건들을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섭리(어거스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홀렌바흐는 루터와 칼뱅의 ‘인간 이성의 정치사회적 기능 이해’에 근거하여 정치사회 영역에서 인간 이성이 법적 제도적 체제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 공적 정체성의 근거 이해에 있어서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4. 공공신학의 스택하우스

: 공적 삶의 영역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라!

1)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스택하우스의 사회윤리

스택하우스에게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적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적으로 수용하여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사적이지만, 개인을 구원한 복음은 기독교 신앙 밖에 존재하는 비신자들이나 잠재적 신자들도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적이다. 또한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은 사적인 문체와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영역과 그 영역에서 정치사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다루어야 하는 공적 문제들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이라 할 수 있다.⁶⁷⁾ 규범적 차원에서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 방향제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정책적 체제적 차원에서 공적 삶의 ‘안내자’로서 기능함으로써 기독교는 공공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해인 것이다.⁶⁸⁾ 다시 말해, 기독교 신

67) 이상훈, 「신학해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이해」,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29-30.

학과 윤리의 원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른 삶의 영역에 스며들어 공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의 범위는 각 영역을 작동하게 하는 제도와 조직 뿐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영역들을 지탱하는 포괄적 신념과 공동의 에토스 형성과 변화에까지 이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⁹⁾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은 반(反)정치신학적이지는 않지만⁷⁰⁾ ‘사회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치신학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공공신학은 ‘정치에 관한 사회이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⁷¹⁾ 정치신학은 정치적 정부를 ‘사회의 포괄적인 제도’로 이해하며 정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강제력의 축적과 사용의 문제 그리고 권력적 관점에서의 사회변혁의 문제 등에 집중함으로써,⁷²⁾ ‘정치’에 앞서며 또 그 보다 포괄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정치신학과 달리, 공공신학이 채택하는 ‘정치에 관한 사회이론’은 ‘정치 질서의 형성에 앞서 존재하는 삶의 영역들⁷³⁾에 우선적 관심을 둔다. [정치질서, 정권, 정치형태 그리고 정책 들은 늘 필요하지만 이들 역시 정치체제보다 선행하는 종교적·문화적·가족·경제적 그리고 지적 전통들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스택하우스는 강조한다.⁷⁴⁾ 다시 말해, “모든 정당과 정부가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권력들 즉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질서의

68)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체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28집(2014), 210-11.

69) Max L.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137-38.

70) 위의 책, 164.

71) Max L. Stackhouse,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서울: 북코리아, 2008), 34.

72) Max L.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166-67.

73) 위의 책, 167.

74) 같은 책.

형성이전에 존재하는 삶의 영역들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⁷⁵⁾ 이런 맥락에서 스택하우스는 모든 정치적 체제들과 권력 구조들은 다른 영역들과의 소통과 봉사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동시에 정치권력의 원천이 되는 다른 사회 전통들(영역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면 후자는 전자에 대해 저항하거나 변혁을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인다.⁷⁶⁾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세계화에 관심이 크며, 세계화의 전망에 관해 긍정적이다. 세계화가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인프라의 성장을 수반하는 문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는 “이전의 모든 민족적,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혹은 문화적 정황을 포괄”하는 범세계주의적(cosmopolitan) 인류공동체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⁷⁷⁾ 공공신학의 세계화 추구는 신학적 근거를 갖는다. 스택하우스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강조한다. 만인구원론의 맥락에서의 보편성이 아니라, 신자와 비신자를 포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에 속한 모든 인간에 대한 섭리적 사랑은 포괄적이라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다. 온 인류와 세상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상응하여 기독교의 사회적 실천은 세계적 지평을 확보하고자 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택하우스의 생각인 것이다.⁷⁸⁾

어떻게 세계적 지평에서 공공신학을 실천할 것인가? 이상훈은 스택하우스에게 기독교는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나아가는’ 종교라는 점을 밝힌다. 참된 행복과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신념을 가

75) Max L. Stackhouse,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35.

76) 같은 글.

77) Max L.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30.

78) Max L. Stackhouse, “Why Christians Go Public,” 미간행 원고, 2006. Max L. Stackhouse,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32-33에서 재인용.

지고 온 세상 곧 세계의 모든 문화, 모든 종교, 모든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종교라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서,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소개하고 모든 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⁷⁹⁾ 또한 기독교는 세계의 다른 종교들과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지역과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종교적 상황에서 공적 영역에 들어가 기독교 신앙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정치사회 공동체의 공공선 증진과 보다 나은 인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른 종교인들과 넓은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스택하우스는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공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⁸⁰⁾ 이런 점에서 스택하우스가 공공선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영역은 개별 시민사회나 하나의 국가공동체에 머물지 않는다. 인류가 구성하는 세계의 모든 정치사회 공동체,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공공선을 증진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도전한다. 그러기에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적 사회윤리는 ‘영역’의 관점에서 교회의 안과 밖을 포괄하고 ‘윤리실천’의 관점에서 개인의 도덕적 실천과 에토스의 형성 그리고 사회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포괄하는 ‘통전적 총체적 사회윤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전적 ‘두 정부’론의 공공성 관점에서의 평가

스택하우스는 기독교의 공적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강조하는 신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회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공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스택하우스의 사회윤리는 아퀴나스와 칼뱅의 그것과 강한 연속성을 지닌다. 정치권력의 목적은 종말

79) 위의 글, 33.

80) 같은 글.

론적 선을 포함하여 전체 사회의 공공선 확보와 증진에 있다는 아퀴나스의 사회윤리적 가르침이나 성과 속을 포괄하여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이 구현되는 거룩한 연방을 기독교의 사회적 이상으로 제시한 칼뱅의 가르침은 공적 영역을 향한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역설하는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적 지향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스택하우스는 아퀴나스와 칼뱅의 정치사회적 이상이 신정체제적(神政體制的) 성과 속의 통일(혹은 일치)로 해석되고 운용될 가능성은 경계한다.

교회의 공적 정체성에 관한 공공신학적 정당화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신학적 인간론이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성 이해의 통전성(혹은 총체성)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 어린 섭리에 그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해는 어거스틴적이다. 앞에서 본 대로, 어거스틴이 공공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인의 공적 참여를 강조한 신학적 근거는 창조의 지평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이다. 또한 이 섭리적 사랑은 인간론적으로 볼 때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에 상응한다. 스택하우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과 결부하여 이해함으로써 기독교는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이론화와 실천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⁸¹⁾

5. 비교와 종합적 평가

1) 관계성

고전적 ‘두 정부’론의 네 신학자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살핀 현대 신학자들 역시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 사이의 극단적 분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81) Max L.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213-22.

방식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사람 모두 둘 사이의 관계성을 교회의 공공성의 규범적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의 목적을 두고 둘 사이의 강한 연속성을 역설하는 리츨을 한 쪽 끝으로 하고, 분리는 아니더라도 통일이나 연속성보다는 구분을 강조하는 요더를 다른 한 쪽 끝으로 위치시킬 수 있겠다. 그 사이에 정치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민감하게 구분하면서 교회의 공적 참여를 강조하는 홀렌바흐와 교회 밖 공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 참여를 역설하는 스택하우스의 입장을 차례로 둘 수 있다. 공적 영역과의 관계성을 교회 공공성의 규범적 요소로 확정하고 강조하는데 이 네 사람의 사회윤리는 공히 유효하다.

리츨이 공동의 공적인 목적을 위한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의 협력적 관계를 제안한 점은 전체 사회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둘 사이의 일치 혹은 통일의 강조가 한 쪽이 다른 한 쪽으로 포섭되거나 둘 사이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두 정부 사이의 적절한 구분을 철폐할 경우, 단일한 정부와 권력 그리고 세계관이 성과 속을 포괄하여 전체 삶의 공간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결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러한 ‘단 하나의’ 정부의 출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든 두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하는 방향 보다는, 그 주권을 부정하거나 침탈하여 인간의 권력이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우상숭배적 양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둘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내포하는 의도와 취지를 되새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본 대로, 루터의 신중론을 반영하여 홀렌바흐는 교회의 공적 참여가 정치 영역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교회의 세속 권력화와 정치권력의 부적절한 종교적 침해를 막기 위한 의도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정부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는 요더의 이해가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요더의 모형이 둘 사이의 구분에 과도한 비중을 둔 나머지 극단적인 분리의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살아내는 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교회 밖 인간과 역사의 공간 안에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주권을 실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바르게 반응한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또 좀 더 넓은 범위로 공적 참여에 힘써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적 조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의 선봉에 스택하우스가 서 있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세속 영역과의 소통을 강조하다가 기독교에 고유한 신학적 신념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⁸²⁾ 우리가 본 대로, 스택하우스는 한편으로 기독교가 전체 사회의 공공선 증진을 위해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을 역설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을 소중히 여기며 선교와 변증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스택하우스는 리츨의 자유주의적 ‘일치’ 모형을 경계하며 동시에 요더의 모형이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적 분리로 흐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2) 공적 영향(변혁)의 가능성

교회의 공적 관계성에 대한 긍정은 공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살핀 현대 신학자들의 사회윤리는 교회의 공적 영향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또 그러한 가능성을 교회의 공적 본질의 중요한

82) Alister McGrath, *Passion for Truth: the Intellectual Coherence of Evangelicalism*, 김선일 역,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서울: IVP, 2001), 142-45.

규범적 내용으로 수용한다. 다만 공적 영향의 방식, 내용, 강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리츨의 사회윤리는 세속 영역에서 일으켜야 할 변혁의 내용과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다.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현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 인간의 '몹'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 구현에 참여하라는 소명이 주어진다. 성과 속의 공동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 사랑의 의지로 묶여진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더에게도 공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나 실현 주체와 영역 그리고 방식의 차원에서 리츨과 다르다. 실현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제자와 제자 공동체이며, 주된 실현의 영역은 '교회 안'이다. 그리고 주된 실현 방식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구현체로서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참된 교회됨을 실현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요더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완전하게 실천한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할 때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규범적 요체는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지고지순한 타자·지향적 헌신이다.

홀렌바흐와 스택하우스에게 교회의 공적 영향의 가능성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공선이다. 이 둘은 기독교의 공적 참여는 전체 사회의 공공선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이해를 공유한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홀렌바흐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공선의 내용에는 사회적 정의의 회복과 확장 그리고 공적 변혁의 원동력인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스택하우스는 좀 더 포괄적이다. 교회가 공공선을 위해 사회 정의 구현과 시민사회 활성화 등의 사회적 과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정책·제도·구조적 차원의 변혁, 공공선 증진을

지향하는 시대적 가치관 혹은 에토스의 형성과 확산, 개별 정치사회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전통, 문화, 학문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대화 등의 공적 사명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 스택하우스의 생각인 것이다.

리츨과 요더가 설정한 공적 목적과 실현 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은가 하는 비평적 성찰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보편적 사랑에의 의지와 도덕적 잠재성 곧 도덕법의 규율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이 인류 공동체를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인간론과 세계 이해를 갖는 것은 존중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대한 과신과 인간의 죄성과 이기성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결여 등의 인간론의 문제 그리고 이것과 연동된 것으로서 인간이 다양한 정치사회 공동체의 형태로 집단화했을 때 여지없이 나타나는 집단 이기주의와 폭력성 등의 엄연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역사 이해의 문제 등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요더의 경우, 교회 공동체로 그 영역을 제한하지만 리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낙관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요더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불러 일으켜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무(ought)를 받았고 수행할 능력(can) 또한 받았다고 믿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 어떤 공적인 선(善)도 현실화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 있고 또 인간에게 충분한 능력이 주어졌다고 믿는 순진한 낙관론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전체 사회의 공공선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 참여를 권장하면서도, 홀렌바흐와 스택하우스는 패배주의와 순진한 낙관론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힘쓴다. 앞에서 본 대로, 홀렌바흐는 어

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사회윤리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
과 인간의 역사내적 성취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며, 스택하우스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인간과 인간 공동체
의 역사적 성취를 상대화한다.⁸³⁾

3) 교회의 공적 정체성의 신학적 근거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법적 인식과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성경에
근거한 특수·계시적 인식 사이의 관계성의 관점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
고 있느냐에 따라 네 신학자는 일종의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양쪽 끝에
리츨과 요더가 위치한다. 리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신앙 공동체의
공적 참여의 근거로 삼지만 도덕법의 규율에 따른 보편적 사랑의 실천
가능성을 신앙의 공동체 안팎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 은혜로 이
해함으로써, 기독교 계시의 특수성과 인류에게 공통적인 윤리적 보편성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그리하여 교회의 공적 참여의 신학적 근거
는 ‘도덕법’이라는 보편적인 인식과 규범의 틀로 서술되고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된다. 다른 한 쪽 끝에는 요더가 위치한다. 그는 철저하게
특수 계시에 의지한다. 넓게는 성서 전체,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만이 신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적 정체성의 근거가 되
어야 한다. 만일 교회가 이성이나 자연법을 윤리적 토대로 삼는다면, 결
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적 가르침(특히 예수의 사랑의 윤리)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홀렌바흐와 스택하우스는 리츨과 요더
사이의 어떤 지점을 차지한다. 홀렌바흐는 한편으로 정치사회적 체제와
법적 질서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이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며 다른
한편으로 이성의 완전성과 무오류성을 부정하면서 신법(혹은 성서)이 이

83) Max L.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321-40.

성의 오류를 치유하며 불완전성을 보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스택하우스도 교회와 세속 영역 사이의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성과 같은 공동의 기반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계시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⁸⁴⁾ 기독교의 공적 참여는 계시와 이성의 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이해하는 신정체제적 모형을 지향해서도 안 될 것이며, 이성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여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신념의 고유성과 규범적 선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 수행한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필자는 기독교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이다. 첫째,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또 공적 영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교회의 공적 사명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적이며, 그러기에 교회 밖 영역(혹은 공적 영역)에서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내포된 윤리적 함의와 정치·사회·문화적 이상을 찾아 세상과 소통해야 하며 또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공적으로 참여함을 통해 교회는 공적 본질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만나는 접촉면은 그야말로 전면적이다. 교회 밖 공적 영역을 구성하는 모든 체제들 곧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84) 임성빈, 「맥스 스택하우스의 신학윤리사상과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세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북코리아, 2007), 54-55; Max L. Stackhouse, 심미경 역, 『지구화·시민사회·기독교윤리』(서울: 페스터스하우스, 2005), 9.

생태계 등의 체제들 모두를 교회의 공적 관계성 형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스택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정치신학적 ‘사회에 대한 정치 이론화’를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영역을 교회의 참여와 변혁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영역에 앞서며 또 토대가 되는 다른 영역들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영역에 참여하여 정책·제도·구조적 관점에서 기독교가 공적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만 정치영역과의 관계 형성과 그 영역에의 참여에 있어서 적절한 구분과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정치의 권력 지향적 속성을 고려하면서 교회의 정치 참여가 권력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정치영역과의 관계 형성이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회를 도구화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의 공적 정체성과 참여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에 관한 것이다. 공적 실체로서의 교회의 공적 참여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신학적 인간론과 ‘주권적 섭리’론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서 천부적 존엄성을 부여 받았다는 신학적 인간 이해에 터하여, 교회는 정치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존엄성을 보존하고 신장하기 위한 사회윤리적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공적 주체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지극한 사랑으로 지탱하시고 돌보시고 궁극적 완성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한다는 ‘주권적 섭리’론에 터하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에 응답하여 그 사랑이 미치는 인생과 세계와 역사의 영역에 들어가 ‘공적 언어와 행동’으로 말하고 소통하고 실천하여 공동의 선을 증진해야 하는 공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공공선에 대한 사랑 사이의 긍정적 연속성을 발견한다. 그러

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에 성실하게 반응하여 공적 영역과의 공동의 기반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되, 신정 체제를 열망해서도 안 될 것이며 반대로 도피주의 혹은 정적주의(靜寂主義)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이 둘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고유한 도덕적 영역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 것이다.

참고문헌

- 문시영. 「공공신학 실천을 위하여: 공-사의 이분법을 넘어서」.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이상훈. 「신학해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이해」.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28집(2014), 193-230.
- 이신형. 『리츨 신학의 개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이창호. 「기독교의 공적 참여에 관한 철학적 윤리적 탐구: 로티(Richard Rorty)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참여 모형 모색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권 3호(2013), 157-192.
- 임성빈. 「맥스 스택하우스의 신학윤리사상과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McGrath, Alister. *Passion for Truth: the Intellectual Coherence of Evangelicalism*. 김선일 역.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서울: IVP, 2001.
- Stackhouse, Max L., 심미경 역. 『지구화 · 시민사회 · 기독교윤리』. 서울: 패스터스하우스, 2005.
- Stackhouse, Max L.,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Stackhouse, Max L.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 서울: 북코리아, 2013.
-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lated by Dods, Marcus. New York: Random House, 2000.
- Augustine. From letter 138, to Marcellinus. In *Augustine: Political Writings*. Translated by Tkacz, Michael W. and Douglas Kries.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4.
- Aquinas, Thomas. *On Kingship*. In *St. Thomas Aquinas on Politics and Ethic*. Translated and Edited by Paul E. Sigmund. New York: W. W. Norton &

- Company, Inc., 1988.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ae*. <http://www.newadvent.org/summa/>.
- Calvin, Jea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s. I, II. Edited by McNeill, John T. and Translated by Battles, Ford Lewi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Heaming, Mary Jane. The confessional basis of Lutheran thinking on church-state issues. In *Church and State: Lutheran Perspectives*. Edited by Stumme, John R. and Robert W. Tutt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Hefner, Philip. *Faith and the Vitalities of History: A Theological Study Based on the Work of Albrecht Ritschl*. New York: Harper & Row, 1966.
- Hollenbach, David. *The Common Good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Little, David. Calvin and the prospects for a Christian theory of natural law. In *Norm and Context in Christian Ethics*. Edited by Outka, Gene and Paul Ramsey. New York: Scribner, 1968.
- Little, David. Reformed faith and religious liberty. In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Edited by McKim, Donald K. Grand Rapids: Eerdmans, 1992.
- Luther, Martin. Secular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In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Translated by Dillenberger, John. New York: Anchor Books, 1962.
- Markus, R. A. *Saeculum: History and Society in the Theology of St. August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Moltmann, Jürgen. *Das Kommen Gottes*. Translated by Kohl, Margaret. *The Coming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O'Donovan, Oliver. *The Desire of the Nations: Rediscovering the Roots of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Rahner, Karl. Nature and grace. *Theological Investigations*. Vol. 4. Helicon, 1966.
- Rahner, Karl. *Foundations of Christian Faith: An Introduction to the Idea of Christianity*. Crossroad, 2000.

- Ritschl, Albrecht.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and Reconciliation*.
Translated by MacIntosh, H. R. and A. B. Macculay. Edinburgh: T. & T.
Clark, 1900.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7.
- Troeltsch, Ernst.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2
Translated by Wyon, Oliv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Yoder, John Howard.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Newton, Kan.: Faith
and Life Press, 1964.
- Yoder, John Howard. *The Original Revolut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71.
-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us Noster*.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4.

논문투고일: 2014. 06. 30.
심사개시일: 2014. 07. 11.
게재확정일: 2014. 08. 09.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에서 필자는 교회의 '공공성'을 규범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교회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규범적 요소들을 밝히고 또 그 요소들을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본 논문의 근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이해를 '두 정부'론(혹은 '두 왕국'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 사회윤리적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국가 혹은 세속 정부와 영적 정부 사이의 대비적 구분을 상정한다. 내적 삶의 참된 경건과 예배 그리고 사회적 행동과 시민적 덕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두 정부 사이에 차이(구분)가 존재하지만, 기독교역사에서 둘 사이에 복잡한 관계의 형태들이 존재해 왔음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종교적·영적' 정부와 '시민적·도덕적' 정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적대적이거나 갈등적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영적 정부가 세속 영역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공적 실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신학적 정당화의 논거는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들은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 사이의 관계성, 전자의 후자에 대한 공적 영향(변혁)의 가능성, 영적 정부(교회)의 공적 정체성의 신학적 근거 등의 주제로 묶어 볼 수 있겠다. 필자는 먼저 고전 신학자들인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뱅의 '두 정부'론을 고찰하면서 교회의 공공성의 규범적 기초를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현대신학의 주된 패러다임들의 공공성 이해를 '두 정부'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고전적 사회윤리와의 연속성을 살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공공성의 규범적 이해의 성숙을 위한 현대신학의 기여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함으로 논문을 맺고자 한다.

주제어: 교회의 공공성, '두 정부'론, 교회와 국가, 교회의 공적 참여, 기독교 사회윤리
